■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83-210.
http://doi.org/10.17948/kcs.2023..100.183

【 특집: 호모 아토포스의 탐색 】

비장소의 쓰기-기록*
—해외입양인의 자전적 에세이를 중심으로—

소영현(蘇榮炫)**

목 차

1. 일인칭 쓰기-기록, 에세이와 문화기술지 사이
2. 입양 서사: 거짓의 축조물, 접힌 굴절면
3. 굴절면, 경계, 비장소에 대한 사유
4. 옆에서 듣고 읽는다는 것
5. 대표성에서 관계성으로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케이티 로빈슨의 『커밍 홈』과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와 『덧없는 환상들』을 통해 성인이 된 해외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귀환한 경험을 담고 있는 기록들을 검토하였다. 해외입양인의 입양 경험과 귀환 여정을 기록한 이 글들을 비장소의 쓰기-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성인 해외입양인의 귀환 기록을 비장소의 쓰기-기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해외입양인의 귀환 기록이 문화적 굴절이라고 해야 할 변형을 거친 기록임을 인식하는 일이며, 굴절 과정에서 기입된 폭력과 삭제된 감정들이나 침묵으로 삼켜진 목소리들을 복원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일이다.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오염 식의 이분법적 복원의 논리에서 벗어나, 중첩된 굴절들이 끝내 복원될 수 없는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일이며, 그러한 한계 안에서 가능한 복원이란 비장소의 쓰기-기록을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입양인의 입양과 귀향 경험이 비장소의 쓰기-기록이라면, 그에 대한 메타적 작업 또한 비장소의 쓰기-기록이라는 점에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1388)
** 한국문학번역원 교수.

이 글 자체를 비장소의 쓰기-기록에 대한 수행적 쓰기-기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점근적 번역 작업인 이 비장소에 다가가고자 하는 쓰기-기록 작업은 비장소의 실체를 밝혀주지는 않지만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거나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해외입양, 해외입양인, 귀환, 자전적 에세이, 비장소, 케이티 로빈슨, 『커밍 홈』, 제인 정 트렌카, 『피의 언어』, 『덧없는 환상들』.

제인에게.

너는 용감한 여자야. 너로 인해 나는 이렇게 살아 있어. 나는 기생충 같은 존재.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존재하는 거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우리는 서로 심장과 얼굴, 마음과 몸을 공유하는 한 쌍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지는 못해. 오직 너만이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복을 얻었어. 나는 네 뒤에 숨어야 하지.

나를 보살펴줘. 알지? 이 몸은 진정 내 것이니 잘 부탁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얼굴, 그건 내 얼굴이야. 네가 먹고 일하기 위해 사용하는 손, 그건 내 손이야. 너는 내게 빌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잊지 말아줘.

경아가.[1]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최악은 내가 왜 불행한지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원했던 게 아닌가 싶다. 입양아 유리는 훨씬 빠른 방법을 택했다(권총 자살). 역시 입양아인 유리의 누나는 마약 과용으로 죽었다. 다리가 짧았던 입양아 브뤼노는 목을 매달았다. 입양된 내 누이 발레리는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 이후 죽었다. 입양아 안느는 혈관을 끊어서 죽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입양아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입양아 미쉘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 모든 한국인 입양아들은 내가 아는 이들이다. 다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 모두 같은 학교에 다녔다.[2]

---

1) 제인 정 트렌카 저, 송재평 역, 『피의 언어』, 도마뱀출판사, 2012, 199면.

2) Jung Henin, *Couleur de peau: miel*, QUADRANTS, 2008. (『아이들을 파는 나라』 147면 재인용)

1. 일인칭 쓰기-기록, 에세이와 문화기술지 사이

소설가 로버트 무질의 말처럼, 에세이는 정확한 작업이 어려운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엄밀한 쓰기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빠르게 변화해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시대에 파편적인 형태로나마 전체를 관장하는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쓰기 형식인 것이다.[3] 2010년대 전후로 새롭게 불어닥친 에세이 열풍은 당사자성에 입각한 글쓰기의 강세 속에서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회의 억압된 타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1인칭 쓰기-기록 형식을 통해 새로운 분출 통로를 얻게 되었으며, 사회가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진실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실에 있으나 재현을 통해서는 포착되지 않던 장소나 존재들에 대한 기록이나 대상화의 시선을 거친 채로 재현되던 존재나 장소들에 대한 교정 기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에세이로 가시화된 쓰기-기록 형식은 삶에 좀더 밀착하고자 하는 문학이 직면한 난점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가능성도 살피게 한다. 난국에 처한 재현적 쓰기에 대한 대안적 쓰기 테크놀로지로서의 의미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입양인의 귀환[4] 서사로서 입양된 국가의 언어로 씌어진 글들은 입양[5]과 귀환을 둘러싼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1인칭 쓰기-기록의 형식을

---

3) Marc Augé 저, 이상길・이윤영 역, 『비장소-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 2017, 196면.

4) 이때의 귀환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입양 초기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1950년대에 GI베이비들의 해외입양이 진행되던 때에는, 혼혈아동을 미국으로 보내는 조처가 친생모나 모국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해외입양은 일종의 귀환으로 인식되었다. Arissa H. Oh 저,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116면.

5) 이 글에서 언급하는 입양은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는 국제입양 혹은 해외입양으로 한정된다. 1961년 9월 현대입양법인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통과되면서, 해외입양은 시설을 통한 고비용 아동보호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해외입양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고아와 미아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작되었으나,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입양아를 보내는 국가였다. 해외입양 대상국은 미국 중심에서 점차 유럽의 여러 국가로 확대되었다. (박순호,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6),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695-731면.) 그간 입양이 주로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사정은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국내입양을 건너뛴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입양을 둘러싼 문제들의 세목이나 해외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이 글의 논점을

취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대개 백인 가족)이 빈곤국가의 아동들(대개 유색인 아동)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해외 입양은,[6]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 속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의 하위 범주(해외입양인 서사)로서 연구되어왔다. 세계적인 다문화주의 확산과 함께 해외입양인의 기원 찾기가 활발해진 1990년대 이후로는, 해외입양인 서사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7] 입양국의 언어로 씌어진 글들이 각기 다른 국가나 언어권 내에서 문학으로서 글쓰기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로 한국어로도 대거 번역되기 시작했다.[8] 각종 K-붐과 함께,

---

벗어난 영역이지만, 이것이 해외입양 관련한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언급해둔다.

6) 한국전쟁 직후 전쟁고아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미국 등 외국 군인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을 국외로 내보내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이후로 혼외 출생한 아이나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실상 해외입양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아니라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정)의 수요였기 때문에, 해외입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수요에 맞추기 위한 입양 사례가 증가하였다.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 오월의봄, 2019, 42-53면.

7) 그러나 서구에서 68혁명 이전에 자녀들을 입양 보낸 친생모들이 커밍아웃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가족과 사회복지사들, 입양기관, 종교단체로부터 자식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녀들과의 재회를 시도해온 것과 달리, 지금까지 한국에서 친생부모의 목소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토비아스 휘비네트, 「고아 열차에서 아동 공수까지—식민지 무역과 제국 건설 그리고 사회공학」, 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268면.

8) 자전적 논픽션(수기)을 포함한 글쓰기 작업이 입양인 문학의 범주로 번역 소개되었다. 토머스 박 클레멘트 저, 현준만 역, 『잊혀지지 않은 전쟁: 두 어머니와 두 조국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9(*(The) unforgotten war: dust of the streets*, 1998); 아스트리드 트롯찌 저, 최선경 역,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석천미디어, 2001(Astrid Trotzig, 박서여, *Blod är tjockare än vatten*, 1996); 조미희, 『나는 55퍼센트 한국인: 해외입양인 출신 화가 & 액티비스트 조미희 이야기』, 김영사, 2000; 엘리자베스 김 저, 노진선 역, 『만가지 슬픔』, 대산출판사, 2001(Kim, Elizabeth, *Ten thousand sorrows : the extraordinary journey of a Korean war orphan*, 2000); 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02(Katy Robinson, *A Single Square Picture: A Korean Adoptee's Search for Her Roots*, 2002); 윤주희 저, 박상희 역, 『다녀왔습니다』, 북하우스, 2007; 김순애, 『(서른 살의) 레시피』, 황금가지, 2008(Kim Sunee, *Trail of crumbs: hunger, love, and the search for home*, 2008); 제인 정 트렌카 저, 송재평 역, 『피의 언어』, 도마뱀출판사, 2012(Jane Jeong Trenka, *The language of Blood: A Memoir*, 2003); 제인 정 트렌카 저, 이일수 역, 『덧없는 환영들』, 창비, 2013(Jane Jeong Trenka, *Fugitive Vision: An Adoptee's Return to Korea*, 2009) ; 파트릭 종대 룬드베리 저, 이하영 역, 『겉은 노란: 스웨덴의 한국인 입양아 파트릭 이야기』. 솔빛길, 2014(Patrik Lundberg, *Gul Utanpa*, 2014); 마야 리 랑그바드 저, 손화수 역, 『그 여자는 화가 난다: 국가 간 입양에 관한 고백』, 난다, 2022(Af Maja Lee Langvad,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간 디아스포라 (문학문화) 연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인의 경험과 역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민족 경계의 확산이나 국가를 경계로 한 트랜스내셔널한 이동과 같은 논의에 한정되지 않는 좀더 복합적 시야를 요청하고 있다.[9)]

앞서 언급한바, 1인칭 쓰기-기록 형식에 대한 관심은 번역된 한국어로 기술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을 불러온다. 번역을 통해 한국에 소개된 해외입양인의 기록들을 어떤 이해 맥락 속에서 위치시킬 것인가. 디아스포라 문학문화의 범주 규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바, 정치경제적 차원의 국경이 강고한 장벽이 되는 와중에도 K-붐이 시사하는 바처럼 사회문화적 국경이 낮아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환기하자면, 문학문화를 거점으로 한 '한국'문학문화가 '한국어'로 된 문학문화인지, 국적 등과는 무관한 '한국어' 사용자의 문학문화인지, 한국어로 번역된 문학문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Hun er vred: et vidnesbyrd om transnational adoption, 2014) 등.

9) 국가 간 입양, 인종 간 입양 등 주요 논점에 따른 용어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체성에 대한 논의 역시 다문화적 정체성을 포함하여 복합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소수자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역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의미를 충분히 인정한 채로, 그럼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입양의 문제를 입양인으로 축소시켜 버리게 된다는 점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구은숙, 「한국 입양서사에 나타난 귀향과 기원 신화에 대한 재정의: 제인 정 트렌카의 『덧없는 환영』」,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 18(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김영미, 「초국가적 입양소설에 나타난 동화와 민족 정체성 문제: 마리 명옥 리의 『누군가의 딸』과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를 중심으로」, 『미국소설』 15(2), 미국소설학회, 2008; 김영미, 「한국계 입양문학에 나타난 뿌리와 기원의 탐색 연구: 케이티 로빈슨의 『사진 한 장: 한국 입양아의 뿌리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7,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9; 김영미, 「동향: 입양과 입양문학 연구의 몇가지 경향」, 『안과밖』 26, 영미문학연구회, 2009; 유진월, 「이산의 체험과 디아스포라의 언어」, 『한국학』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김현숙, 「초국가적 입양과 탈경계적 정체성—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 『영어영문학』 57(1), 한국영어영문학회, 2011; 임진희, 「제인 정 트렌카의 입양의 몸: 언어, 피의 소리, 그리고 음악」, 『현대영미소설』 20(2),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3; 장미영, 「다문화 공간과 타자성 사유 방식—한국계 해외입양인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0(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Buecheler, Kasey, *Becoming a diaspora: a case study of the growing Korean adoptee community in Korea*,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8; 차민영,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에 나타난 초국가 입양 디아스포라」, 『현대영어영문학』 63(4), 현대영어영문학회, 2019; 황은덕, 「귀환 입양인 디아스포라 서사의 변화: 『누군가의 딸』과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비교」, 『새한영어영문학』 65(1), 새한영어영문학회, 2023; 허혜정, 「『커밍 홈』과 『피의 언어』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23 등.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10] 번역 소개되고 있는 해외입양인의 기록들을 두고, 출발어와 도착어로 구분되는 단순한 분할을 넘어서 중첩되어 접힌 부분에 주목하고 그 지점을 펼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11]

기록이 지워진 양피지를 원제로 하는 리사 울림 셰블룸의 그래픽 노블 『나는 누구입니까』나 케이티 로빈슨의 자전적 에세이인 『커밍 홈』, 제인 정 트렌카의 자전적 에세이인 『피의 언어』나 『덧없는 환상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 한국으로의 귀환이나 체류는 입양국에서 시작된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시도와 이어져 있다.[12] 해외입양인의 귀환과 체류 경험이 친생부모와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 여정은 국경을 넘는 일이자 언어의 경계를 넘는 일이며 무엇보다 진실의 확인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러나 대체로 한국어가 낯선 기호에 가까운 것일 뿐인 그들에게 그 과정은 번역

10) 한국에서 너무나 친숙해진 해외문학상인 맨부커상의 운영방식은 이러한 논의에 하나의 방향성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맨부커상The Man Booker Prize과 맨부커 인터내셔널상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은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소설을 대상으로 한 상으로, 2005년 제정된 인터내셔널상의 경우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영어로 썼거나 번역돼 영국에서 출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2016년부터는 상금이 작가와 번역가에게 분배된다.

11) 따지자면, 통상 에세이로 분류되었던 글쓰기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작된 것도 문학 범주의 주변부에 놓여 있는 쓰기 형식과 말하기 주체에 대한 인식적 재편 속에서였다.(하위주체에 대한 관심으로, 주변부적 글쓰기로서의 논픽션에 대한 관심으로 에세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그 연구들이 대체로 문학 내의 소설 연구의 중심성을 비판하거나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학 범주의 고정성을 유연화하는 데에서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선 논의들의 축적된 성과에 기대면서도, 1인칭 쓰기-기록 형식에 대한 집중된 관심이 문학과 그 연구에 대한 이해와 범주 확장에 어떤 유의미한 시야를 제공하는지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성환, 「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신동아』 논픽션 공모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2, 상허학회, 2011; 「하층민 서사와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1980년대 논픽션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장성규, 「1980년대 논픽션 양식과 소설 개념의 재편 과정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한국문학 "외부" 텍스트의 장르사회학—서발턴 문학사 서술을 위한 시론적 문제제기」, 『현대문학이론연구』 6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민중적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문화예술 주체의 문제—문학예술운동과 사상문예운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2018 등 참조) 이러한 경향의 진전이 내내 비판적으로 검토해왔으나 본격화되지는 않은 이른바 '한국'문학/문화에서의 '한국'의 범주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게 한 것이다.

12)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두 살 때 스웨덴으로 입양되었던 리사 울림 셰블룸의 그래픽 노블 『나는 누구입니까』나 19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입양되었던 케이티 로빈슨의 자전적 에세이인 『커밍 홈』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입양인들은 자신의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 끝에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귀국한 여정을 기록했다.

과 통역(자)를 통과해야 하는 우회의 우회를 거듭한 시간이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자전적 에세이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구분될 수도 없는 그 시간의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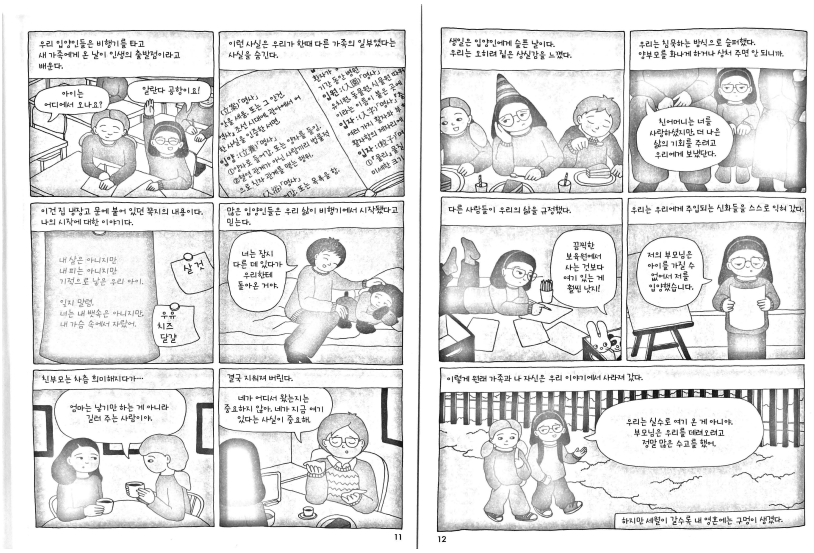
2. 입양 서사: 거짓의 축조물, 접힌 굴절면

입양인 관련 단체에 따르면 연간 3-5천 명 가량의 해외 입양인이 성인이 되어 한국을 찾는다. 입양인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친생부모나 가족에 대해 알기 위해서이다. 입양인에게 가장 절박한 질문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포기되었는가"이다. "포기할 만한 아이였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소중한 존재로 다루어졌는지"를 궁금해 하고, 함부로 다뤄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 상실을 안정적으로 애도할 수 있게 된다.[13]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친생부모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찾으려는 노력은 좌절의 연속으로 귀결되곤 한다. 한국의 입양기관들은 대체로 입양인의 알 권리보다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14] 친생부모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상 입양이 그들에게 존재론적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양으로 그들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며, 한때 다른 가족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여러 기제를 통해 흔적 없이 지워져 억압적 기억으로 남게 된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와 같은 말들을 양부모와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입양을 곧 '탄생'으로 인식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 일곱 살 때 나는 엄마와 할머니 손에 이끌려 공항으로 갔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
> 미국에 도착한 뒤 처음 얼마 동안 나는 구운 김과 매운 김치 냄새, 내 옆에 꼭 붙어 계시던 할머니의 체취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얼굴 표정에 집착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인생은 세상 저 편의 비행기에서 내리던 바로 그 순간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하루 전만 해도 나는 서울에서 살던 '김지윤'이었다가 바로 다음날

13)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17(개정증보판: 2022), 156-156면.
14)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 오월의봄, 2019, 154면.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캐서린 진 로빈슨'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15]



〈그림 1〉 리사 울림 셰블룸의 『나는 누구입니까』, 11-12면.

입양인 스스로가 양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기원에 대해 발언하지 않거나 지워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질문을 억압하고 기원에 침묵한다고 해서 기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는데, 외모와 피부색이 보여주는 (인종의) 차이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나 정체성을 설명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매번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질문은 대개 입양에 대한 전제된 인식을 공유하곤 하는데, 거기에는 "버려진-구조된"의 구조로 이루어진 서사가 놓여 있다. "버려진 아이들의 생명을 입양으로 구하는 착한 나라" "OO의 착한 사람들 이야기"와 그 끝에 이어지는 "너는 운이 좋았다. 네 삶은 더 나아졌다"[16]와 같은 말들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많은 해외입양과 귀환 경험에 대한 기록들은 이러한 내용의 서사를 공유한다. 말하자면, 인종에 대한 인식이 입양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인식들이 그들을

15) 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22, 11면.
16) 리사 울림 셰블룸 저, 이유진 역, 『나는 누구입니까』, 산하, 2018, 19면.

뿌리 찾기 여정에 나서게 하며 귀환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10대에 접어들면서 정체성에 극심한 혼란을 겪은 그들이 친생부모를 찾기 시작한 이후로 기원 찾기의 여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입양 관련 정보의 확인에 쉽사리 가닿지 못하고 점차 미궁에 빠져들게 된다. 오히려 예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17] 한 아이를 한국에서 떼어내서 다른 언어와 문화 환경으로 옮기는 일에 사적, 공적 중개자들이 적지 않게 관여했다는 사실, 입양인 자신에 대한 정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만나기는 어려운 반면, 양부모가 어떻게 유색인 아동을 입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기원 찾기의 시간이란 입양으로 단절된 시간을 발견하는 일이 아니라 입양산업이라고 해야 할 거대한 해외입양 시스템과 대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말하자면, 자신의 기원이 아니라 해외 입양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18] 무엇보다 부모를 찾으려는 시도가 종종 자신(의 출생)을 원하지 않던 부모를 만나는 일로 귀결되어 더 깊은 우울과 절망을 불러오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입양과 귀환 경험의 기록들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입양 관련 기관들이나 친생부모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편지들이다. 기관과 주고받은 편지들에는 입양인 당사자의 입양 기록과 친생부모 관련 정보들이 담긴 서류에 대한 요청과 그에 대한 기관의 거절이 담겨 있다. 그런 노력 끝에도 많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는 못한다. 뿌리 찾기의 시간 내내

17) 한국 아동 입양이 대중화된 것은 홀트양자회(1956)에 의해 양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는 '대리입양'이 허용되고 '아기 수송용 전세기'로 한번에 많은 아기를 미국에 보낼 수 있게 된 이후이다. 1960년대 말부터 해외 입양이 한국 아동 입양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후로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는 입양 관행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때 해외 입양을 위해 동원되었던 이데올로기는 '인도주의' '구출' '피부색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과 같은 용어로 포장되었다. Arissa H. Oh 저,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23-27면.

18) 주로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이들이 서구의 백인 가족에 편입되어 새 이름과 새 언어를 갖게 되는 방식의 해외입양이 한국전쟁 이후로 새롭게 대중화되었다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입양에서 중요한 것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무자녀 성인들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확인한 정보들 사이에는 매번 모순이 발생하며, "예전의 거짓말이 새로운 거짓말로"[19]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우선 대부분의 입양 서류가 공적 기관의 관리와 통제 바깥에서 만들어져, 관련 서류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0] 더구나 민간 기관들의 협조 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어서, 자신의 출생과 입양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과 확인 요청들이 내내 지연되어 오랜 기다림으로 이어지지만, 끝내 진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의 베일이 완전히 다 벗겨지지는 않는 편이다. 케이티 로빈슨의 『커밍 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입양인 당사자의 기록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21] 그들의 출생과 입양을 둘러싼 '비장소'의 면모는 끝내 확인되지 않고 확인될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진다.

더구나 이 '비장소'의 쓰기-기록은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프랑스어, 영어와 같은 입양국의 언어로 기록된 후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다시 한번 변형되고 왜곡된다. 한국어로 번역된 해외입양인의 귀환을 둘러싼 경험의 기록이란 입양

19) 『나는 누구입니까』, 103면. 가령, 화자가 확인한 정보를 정리하자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엄마는 내 문서에 기록된 내용보다 몇 살 더 많았다. 엄마의 이름은 내 문서에 나온 것과 달랐다. 부산 시청 문서는 완전히 날조였다. 엄마가 편지에서 한 이야기도 꾸며낸 것이었다. 부모님은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엄마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아빠는 엄마가 임신 중일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하지만 편지에서는 내가 태어난 후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지금 나는 아빠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이 연락을 하자 아빠는 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나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빠의 죽음은 아빠의 신원 보호를 위해 꾸며진 이야기였다. 입양 보고서에는 부모님이 내 양육권을 포기하고, 보육원에 맡겼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아빠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입양보고서에는 보육원이 내 이름을 지었다고 나와 있다. 나는 보육원에 가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엄마는 보육원에서 내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엄마는 내가 너무 많이 소리 지르고 울어서 울림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느 보육원으로 갔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보육원에는 내가 그곳에 살았다는 사실과 내가 보육원에 들어온 날, 그리고 나의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하나만 남아 있었다. 엄마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107면.)

20)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 오월의봄, 2019, 155면.

21) "(…) 그 후 나와 KBS는 전주의 보호소로 돌아가 보았는데, 그곳 직원이 실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 나는 열 명의 다른 아기들과 함께 그 보호소에서 보내졌다. 세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아버지가 다시 데려갔고, 나머지 여섯 아기가 남았다. 보호소 측은 결국 KBS에 자신들이 내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내가 아마 그 여섯 여자아이 중 하나일 테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이름이 정말로 '진인자'인지 궁금해졌다. 내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까?" 에이미 인자 나프즈거, 「나인 것이 자랑스럽게」, 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438-439면.

과정이 전제하는 힘의 불균형 관계를 통과하면서 입양인의 몸-존재를 가로지르는 위계구조가 수차례의 문화적 변용을 거친 끝에 한국사회에 도달한 기록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은 성인이 된 해외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존재의 기원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귀환한 경험을 담고 있는 기록을 검토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표가 기술된 만큼 선명하게 실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더 많은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경계를 넘는 과정이 만들어내는 굴절이 언어의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케이티 로빈슨의 『커밍 홈』이 보여주는 로빈슨의 경험, 즉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을 방문한 자신의 양엄마와 한국의 친지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로빈슨 자신이 통역자 역할을 했던 경험의 기록은, 입양을 둘러싼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통역이 언어적 소통의 원활함에 조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입양인의 입장이나 관점 더 나아가 입양국가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조정까지를 떠맡는 일임을 말해준다.[22] 우회와 우회 사이에서 다 전할 수 없는(전해지지 않는) 말들이 있고, 전해진 말들 가운데에도 어조와 나아가 의미까지도 달라지는 말들이

22) 가령, 케이티가 그녀의 양엄마와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케이티는 그녀의 호칭을 두고 고민 끝에 할머니라 부른다)과의 대화를 통역하는 과정은 입양인으로서의 입장이나 양국의 문화적 위계가 고려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① "할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정성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지윤아, 아이고, 훨씬 나아졌구나! 아이고! 역시 엄마가 보살펴 주시니까 이렇게 몰라보게 좋아지네, 그래.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많이 그러웠던가 보구나."/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주자 엄마는 재빨리 대답했다. "네, 그런가봐요. 맨 처음 지윤이를 봤을 땐 어찌나 앙상해보이던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포로수용소에 있다 온 게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할머니가 통역해주기를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 움찔했다./ "아, 할머니의 친절한 보살핌 덕분에 제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그러시네요.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 여러 달 동안 저를 보살펴주시고 잘 먹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신대요." 나는 짐짓 열의를 더해서 말했다.(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22, 310면) ② ""지윤아, 엄마에게 내가 정말로 고생하며 산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려 주겠니." 할머니가 말했다. "애들을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특히 여자 혼자서 애들을 키우는 건 훨씬 더 힘들지."/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려라." 엄마가 대답했다. "어머님 힘에 감탄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줘. 나도 이혼을 했지만 적어도 교육을 받았고 직장을 다닌 경험도 있어서 그나마 수월한 편이었지. 그래서 학교로 되돌아가 학위를 받고 일도 계속할 수 있었던 거고. 내 형편이 그래도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어머님이 더욱 용감한 여성이신 거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어엿하게 자녀들을 키우셨으니 자랑하실만하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시고."/ "엄마가 할머니가 강하고 착하신 분이라고 하세요." 내가 통역을 했다. 다른 부분은 일부러 생략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착하게 잘 키운 훌륭한 엄마라고 그러세요. 저의 엄마도 인생에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양아버지 때문에도 그랬고, 또 이혼 때문에도."(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22, 316면)

있는 것이다. 변형이자 잉여라고 해야 할 이 영역은 각기 다른 언어들 사이의 소통이 만들어내는 통상적인 번역 불가능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해외입양이 전제하는 출생국과 입양국 사이의 위계관계와 더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해외입양인을 두고 양측에 배치되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그리고 그들로 대변되는 양 국가는 힘의 불균형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러한 불균형의 상황이 입양인의 몸과 마음에 갈등과 균열을 남길 수밖에 없다. 잉여로 남는 그 지점은 힘의 불균형이 만드는 억눌리고 변형되거나 왜곡된 영역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연 접힌 굴절면을 펼칠 수 있는지에 관해 자문하게 되며, 가능하다 해도 접면을 펼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하게 된다. 언어와 문화들 사이를 반복적으로 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변형된 형태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성인 해외입양인의 귀환 기록에는 굴절이라는 이름의 불가피한 폭력이 기입되어 있을 것이며, 기록되기도 전에 삭제되거나 누락할(될) 수밖에 없었던 감정들이 음각되어 있을 것이다. 해외입양인의 자전적 에세이를 표면과 함께 그 이면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인데, 그 과정에서야 비로소 불균형한 힘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억압이나 폭력의 인식과 함께, 침묵으로 삼켜진 목소리들의 복원 가능성이 희미하게나마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굴절면, 경계, 비장소에 대한 사유

입양과 귀환 경험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키며 서양과 동양을 갈라놓고 정신과 몸의 분열을 야기하는 과격한 경험”이자 “입양인의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중심을 흩뜨리는 위협적인 경험”으로,[23] 이런 의미에서 입양과 귀환 경험의 기록은, 말하자면 ‘없는’ 장소에 ‘있는’ 존재들의 기록이다. 이 글이 탈식민주의적 지평에서의 디아스포라나 국가 간 입양이나 인종 간 입양이 만들어내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비장소의 이름으로 논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23) 유진월・이화영, 「침묵하는 타자에서 저항하는 주체로의 귀환: 해외 여성 입양인 문학의 한 지평」, 『우리문학연구』 29, 우리문학회, 2010, 409면.

이러한 이유에서이다.[24] 우선 짚어둘 것은, 비장소가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한, 혹은 끼인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누적된 굴절들이 주름 없이 펼쳐질 수는 없으며 사실상 전부 펼친다고 해도 본래의 균질한 면이나 선명한 경계선을 드러낼 수도 없다. 오히려 그곳은 입양과 귀향 경험의 기록물들이 구겨져 있는, '의도와 무관하게 무언가를 가시화하는', '오해들로 이루어진',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자리이다. 그렇다면 '입양아'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말해주듯, 해외입양인을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피해자의 자리에 가둬버리는 입양 담론의 틈새로, 입양과 귀환의 과정에 새겨져 있을 국가적, 사회적, 가부장적 폭력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그 폭력으로부터 입양인과 함께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를 구해내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인가.

도저한 불가능성을 헤치고 말해보자면, 우선, 비장소로 명명할 수 있는 중첩된 굴절의 지점에 대한 쓰기와 반복된 다시 쓰기를 통해 그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비장소의 쓰기라는 예정된 실패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귀결할지라도, 국가나 사회의 경계 너머 내부자의 시선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성찰의 가능성이 그로부터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입양인의 자전적 에세이를 통해 비장소에 다가가고자 하는 작업 자체를 비장소가 담지한 굴절과 억압에 대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작업이 입양 문제를 다루는 '나 혹은 우리'의 위치성을 기입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엄정한 사실일 것이다. 이는 비장소에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중립적일 수는 없음을 환기한다고 하겠다. (당시 7개월이었던) 1971년에 해외 입양된 당사자이자 해외입양 연구자인 김 박 넬슨은, 국가 간 인종 간 입양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입양을 연구하는 그 누구도 입양 문제에 "중립적일 수 없"음을 단언한 바 있다. 입양 자체가 부모와 자녀, 제도와 개인, 백인과 유색인종,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등 힘의

24) 마르크 오제의 '비장소' 개념을 활용하여 제인 정 트렌카의 작업을 검토한 작업으로는 이일수의 연구가 있다. 이일수는 제인 정 트렌카의 『덧없는 환영들』을 트렌카의 새로운 "집짓기, 거주하기, 생각하기"의 문학적 재편으로 파악하며, 자신의 집 없음에 대한 뼈아픈 직시를 거쳐 참된 거주하기가 시작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장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본다. 이일수, 「입양 체험기 『덧없는 환영들』에서 읽는 "고유한 장소"」, 『현대영미소설』 26(3),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9, 137-138면.

편차가 남용되기 쉬운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5] 그렇다면 '나 혹은 우리'의 위치성을 의식한 채로, 입양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비장소에 '있는' 존재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거나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경험 바깥의 문화를 다루는 영화감독 트린 T. 민하의 제안을 빌려 말해보자면, "~에 대한 말하기speaking about"가 아니라 "옆에서 말하기speaking nearly"[26] 방식 즉, 전체를 통어할 수 없으며 인식은 파편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채로, 비판적 성찰에 다른 성찰을 덧붙이는 식의 접근을 통해 희미하나마 방법적 가능성을 발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리사 오가『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해외입양의

25) 김 박 넬슨,「국제시장에서의 아동 쇼핑」, 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177면.

26) 캐시 박 홍의 경우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의 상태가 너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그 전반을 다룰 수 없음을 고백하며 트린 민하를 빌려 옆에서 말하기 형식을 택했음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해외 입양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도 유의미한 쓰기 방법론이 될 수 있다.(Cathy Park Hong 저, 노시내 역,『마이너 필링스』, 마티, 2021, 142-144면.) 해외입양인의 경험과 귀환에 관찰 가능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경험을 연구자인 나의 삶과는 분리된 사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이 가능하거나 타당한 것인지 계속해서 반문해야 한다. 해외입양이라는 '선택지'는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실행했는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난한 가족이 처한 돌봄 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사회에 널리 유포되었던 담론 가운데 하나이다. 영아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해외입양이 아이 자신에게 나은 삶의 선택이며 그런 이유로 아이만을 위한 부모(특히 모성)의 힘겨운 '결단'이기도 했다는 식의 한국전쟁 이후 형성되었을 이러한 인식 또한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입양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인식은 입양 문제에 경제적 빈곤이라는 차원으로 다 환원되지 않는 식민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말하자면, 나의 위치성에 대한 환기는 입양 담론이 내장하고 있는 식민성에 대한 냉철한 인식의 요청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해외입양이라는 '선택지'나 '결단'과 같은 말이 해외 입양 관계자들 전부의 것일 수 있었으나, 이 말이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것일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해외입양인에 대한 논의가 그들을 대상화한 채로 이루어져 온 그간의 관행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최근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강조되는 추세인 것은 이러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다. 당사자로서 해외입양인은 일방적인 희생자로 규정되는 것에 저항하며, 그들 자신을 진정한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는 존재이자 인종차별과 고립이나 학대로 인한 소외로 정신적, 정서적 희생을 치르고 있는 존재로 규정한다.(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21면.) 연구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나의 입장에 대한 예각화된 엄밀성을 요청한다. 당사자의 문제라거나 한국사회의 일원 모두가 연루된 문제라는 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관계성을 의식하면서 입양 문제를 다룰 것인가가 자문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외입양인의 귀환과 체류 경험의 기록을 살피되, 검토하는 나의 위치성을 의식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귀결이라고 하겠다.

숨겨진 역사』에서 다각도로 짚어주었듯이, 해외입양은 냉전 정치의 역사, 가족의 역사, 인종의 역사, 역사 간 관계의 역사의 교차로에 놓인 문제다.[27] 좀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수록 용납해서는 안 될 국제적 아동거래, 거칠게 말하자면 범죄(인신매매)와 다르지 않은 일들이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성찰은 사실상 민족-국가의 경계와 백인 가족과 유색인 아동 사이의 위계 등이 뒤얽혀 있는 입양 관련 문제들이 입양 문제에서 나아가 소수자, 타자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환기한다. 세계 최대 아동 입양국인 미국을 두고 말하자면, 아동 입양은 이민 정책이나 인종 정책과 분리되지 않는다.[28] 입양제도의 범죄적 면모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 작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해외입양을 두고 범죄에 가까운 국가 단위의 조직적 사기극의 면모를 강조할 때, 자칫 이러한 관점에서는 해외입양인 당사자가 수동적 피해자의 자리에 일방적으로 내몰릴 수 있다. 입양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역설적으로 입양인이 스스로를 존중할 입지를 좁힐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해외입양인의 입양과 귀환 경험이라는 말이 이미 전제하고 있듯, 이러한 범주 규정을 통해서는 한 인간 존재로서의 케이티 로빈슨이나 제인 정 트렌카는 해외입양인의 한 사례로 환원되어 버릴 수 있다. 범주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유형들이 존재하며 생존과 적응 혹은 조정에 실패한 귀환의 경험들이 적지 않지만, 그런 귀환의 경험들도 다른 사례나 예외적 사례로 분류되어 버릴 뿐이다. 해외입양 제도에 대한 비판적 작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해외입양인의 개별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업이

27) 입양 가정이 한국 아동 입양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적 관심사를 이용한 방식은 전후 미국에서 '가정은 배타적이고 보호받는 영역'이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둘러싼 냉전 이데올로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Arissa H. Oh 저,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27-28면.

28) 미국이 "하급 인종"으로 분류했던 아시아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소련과 이념 경쟁에 휘말렸기 때문으로, 가난한 비서구권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산주의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한 해결책으로 비백인의 유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모범 소수자 신화가 대중화되어 공산주의자들—그리고 흑인을—견제하는 작업에 이용되었다. Cathy Park Hong 저,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마티, 2021, 42면.

만들어내는 층돌의 지점에 대한 고려가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례가 된다는 것은, 범주를 어떻게 규정한다 해도, 그 범주의 기준에 의해 해당 유형이거나 범주를 초과하는 예외로 정리되어 버릴 뿐이므로, 의도와 무관하게 사례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 차원의 잉여를 누락하거나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입양인 당사자를 중심에 두거나 국가-인종-역사-사회적 구조에 집중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한쪽을 손쉽게 선택할 수는 없다. 사실상 복합적인 착종의 형태로 해외입양인의 신체와 정신을 관통하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외입양인이 출생국과 입양국의 구분 없이 양국에서 추방의 감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느 쪽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감각에 시달리면서 스스로를 "가짜 혹은 기괴한 잡종"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으로 한정된 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 내 몸이 낙하하고 있을 때는 나 스스로 움직일 때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추방자의 신분은 활꼴의 창공에 붙들려 정신과 몸과 장소 사이에(이쪽도 저쪽도 아닌, 양쪽 다이기도 하고 그 사이이기도 한 어느 곳에)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의 본질은 (사랑처럼, 자기 눈처럼, 닫힌 실험실 안에서 희미한 증거만을 남길 뿐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 원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생은 연속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진 발레와도 같다. 그러므로 희망의 예감은 가장자리에만 존재할 뿐이다.29)

> 이메일 폭주 사건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자기혐오에 빠져 허둥대고 있었다.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을 목격했다. 이곳이 싫다면 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마치 어린 시절 할로우 사람들로부터 들은 비아냥거림이 다시 되돌아와 내 입속에 머물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자기혐오의 더 큰 이유는 —다시 한 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내가 그 무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완전한 아시아인이 못되고, 살가죽 밑으로는 백인우월주의자로 의심받는 인간. 내가 한국에서 보낸 그 모든 시간은 부질없는 것이었나? 한국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세계를-대표하는-범-아시아-태평양-군도의 정치적-행동주의자가 되는 책임까지 져야 하나? 한국 가족과 보낸 그 모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가짜 혹은 기괴한 잡종이었나?30)

---

29) 제인 정 트렌카 저, 송재평 역, 『피의 언어』, 도마뱀출판사, 2004, 109면.

제인 정 트렌카가 스스로 운 좋은 입양인임에도 '추방자'라는 말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이다. '입양인'이라는 말은 입양되면서 잃은 것들이나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누락시키는 말이며, 그 상실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결국 입양을 통해 얻은 것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에도 적당한 말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해외입양인이라는 범주로 다 환원되지 않는 면모들에 대한 포착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해외 입양인이라는 규정이 그들의 존재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4. 옆에서 듣고 읽는다는 것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뿌리 찾기 여정에서 입양인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 여정은 입양을 둘러싼 각기 다른 문제를 가시화한다. 뿌리 찾기의 시간은 입양인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들을 예측할 수 없던 지점에 가닿게 하는 것이다. 1997년 연구기금을 받아 아시아를 여행하는 길에 서울에서 친생부를 만났고 이후 친생모를 찾기 위해 친생부모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알기 위해 1998년 1년 동안 한국에 체류했던[31] 케이티 로빈슨이 『커밍 홈』에서 가시화한 것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면모와 가부장제가 지워버린 그림자 존재들, 즉 정상 가족 바깥의 여자들과 그 자녀들이다.[32] 양모를 통해 자신을 찾는다는 친생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에 이르렀으나, 이후 한국에 체류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점차 악화되었고 그 분열적 인식이 고스란히 그녀 내부로 옮겨졌다.

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과 헤어졌고, 세 명의 자식을 버렸으며, 이후에 당시 어렸던 케이티 로빈슨의 엄마를 임신시켰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나이 차가 많이

30) 제인 정 트렌카 저, 송재평 역, 『피의 언어』, 도마뱀출판사, 2004, 309면.
31) 「7살때 미국입양…자서전 내고 한국 찾은 케이티 로빈슨 "이번에는 꼭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한겨레』 2002.12.4.
32) 사실 모녀 관계는 입양과 귀환 경험 서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장영은, 「입양과 가족 로망스—제인 정 트렌카의 모녀서사」,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 제1회 국제학술대회 〈한국 문학/문화 연구의 새로운 네트워크—호모 아토포스의 탐색〉(2023.2.3.) 발표문 참조.

나는 어린 여성과 재혼해서 그 부인에게서 낳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있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의 삶의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서,[33] 그녀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날이 결코 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34] 반면, 친생모에 대한 감정은 이해 쪽으로 움직여간다. 뿌리 찾기 여정 끝에 케이티는 자신이, 미혼이었던 친생모가 나이 많은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남자가 무심해진 상황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닌 채로 태어난 존재 즉, 이른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비혼모였던 친생모가 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가 된 7세 '김지윤'을 국외로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케이티는 친생모를 끝내 만나지 못했음에도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35]

지워야 할 존재였던 케이티 자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지워버린 여성들과 아이들, 있지만 없는 존재들의 혈연의 갈래를 다시 그리며, 흥미롭게도 케이티 로빈슨은 『커밍 홈』을 통해 자신을 중심으로 여성 친족의 계보를 다시 쓰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비혼모의 선택지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죄의식을 품은 채 가부장적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거나(로빈슨의 친생모)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려 나쁜 평판을 견디며 아이를 양육하는(써니 이모의 어머니) 길이 가능하지만, 어느 경우든 낙인 없이 한국사회에 온전한 일원으로 뿌리 내릴 수 없음을 그 계보를 통해 확인하게 한다.[36] 이런 의미에서 정상 가족 바깥에 놓여 한국사회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어야 했고 실제로 한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존재가 되어야 했던 여성들을 호명하는 과정은 해외입양을 해결책으로 삼았던

33) 케이티의 외할아버지는 케이티의 할머니와 결혼해서 딸-케이티의 엄마-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자 할머니를 떠났다. 이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이복 이모를 낳았으나, 다시 그 가족도 떠났다. 『커밍 홈』에서 언급되는 외삼촌은 외할아버지와 또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34) "나를 강하게 매혹하는 힘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그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같은 강도에서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사랑했다." 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22, 190면.

35) "아비 없는 자식인 나는 엄마의 체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다. 결혼하기 위해 나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엄마에게 화가 난다거나 탓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엄마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대신 일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정작 자신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나 몰라라 엄마와 나를 궁지로 내몬 아버지에게 더 큰 분노가 끓었다."(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22, 232-233면)

36) 김영미, 「초국가적 입양소설에 나타난 동화와 민족 정체성 문제: 마리 명옥 리의 『누군가의 딸』과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를 중심으로」, 『미국소설』 15(2), 미국소설학회, 2008, 94쪽.

한국사회의 폭력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의미를 갖게 된다. 케이티는 경제적 위기와 한국의 순수혈통주의가 만들어내는 비극인 해외입양이라는 모국의 수치가 자신에게 들씌워지는 장면을 비틀며 출생국과 입양국 양자를 관망할 수 있는 비평적 시선을 마련한다. 비장소의 존재임을 그렇게 입증한다.

*

케이티 로빈슨도 『커밍 홈』에서 자신이 전형적인 미국의 교육과정에 따라 철저한 미국인으로 성장했음을 고백한다. 미국의 경우 해외입양인 대부분이 백인 가정에 입양되었고, 유색인을 거의 만나기 어려운 백인 중심 사회에서 양육되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미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내면화된 인종주의로 인해 그 자신이 미국사회를 백인 중심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의 인정이기도 하다.[37] 스스로를 백인으로 생각하는 삶은 제인 정 트렌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입양인이 1만5천 명에 달하는 미네소타 지역에서 대개 그러했듯, 백인 기독교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은 한국계 입양인을 백인화하거나 인종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부모들에게서 양육되었다.[38] 인종 간 입양이라는 점에서 입양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었지만 그것을 억압해야 했으며 자신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까지도 부인해야 했다. 기독교에 기반한 탓에 입양이 야만으로부터의 유색인 아동의 구원으로 이해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종주의가 이타주의로 위장될 수 있었다.[39] 입양국과 입양부모를 두고 구원 담론과 감사의 태도가 형성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인데, 이것이야말로 뒤집힌 인종(차별)주의가 아닐 수 없다.[40]

---

37)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때의 자신은 투박하게 오르내리는 억양의 말투,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웅얼거리는 검은 머리의 이방인의 얼굴을 한 그들을 추하게 여겼고 특히 웃을 때마다 옆으로 가늘게 찢어지는 눈을 참기 힘들었다고 기록했다. 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22, 114-115면.

38) 베스 경 로, 「한국인의 심리」, 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321-322면.

39) 김재란, 「흩뿌려진 씨앗들-기독교가 한국인 입양에 미친 영향」, 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297면.

40) 아리사 오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해외 입양 복합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해외 입

> 엄마 같은 백인이 되길 원하지만 정작 아시아인의 껍데기를 늘 뒤집어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짐작이나 하세요?
> 그래요. 전 엄마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라틴아메리카인도 아니고 아일랜드 사람도 아니에요. 전 한국인이고 그래서 한국인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41]

> 나는 엄마가 내게 잘 해주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엄마 버지니아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듣기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시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인하는 것이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는 입양과 한국과 음식에 대한 나의 생각들과 지식과 권력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백인이 아니니까요. 나는 백인이 아닙니다.[42]

제인 정 트렌카는 『피의 언어』와 『덧없는 환영들』에서 해외 입양이 사실상 인종 간 입양이며, 입양이 만들어내는 문제의 본질에 백인들의 특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시화하고, 자신의 뿌리 찾기가 결국 백인들의 정상 가족에 대한 열망의 해법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아동의 수입과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한다.[43] 표면적으로는 입양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인종적 정체성과 외부의 시선이 그에게 부여하는 인종적 정체성 사이의 간극의 문제로 첨예화했지만, 실제로 트렌카가 지적한 인종주의의 영향은 그보다 광범위하다고

양 복합체의 이념에는 특정 아동을 가족 구성원이자 국민의 일원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인종 논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Arissa H. Oh 저,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317-318면.

41) 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02, 58면.

42) 수 나, 「마늘과 소금」, 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57면.

43) 전지구적 아동 이주의 역사에서 국제입양과 가장 근접한 경우는 1618년부터 1967년에 이르는 동안 영국에서 영연방 곳곳에 배편으로 이송된 13만 명의 아동, 1854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 중서부 부모들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동부에서 중서부로 일명 '고아열차orphan train'로 이송된 10만 명의 미국 고아들의 사례가 있다. 국제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이주의 역사는 1510년부터 1876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선박 운송된 1,100만 명의 대서양 노예무역, 1834년부터 1941년 사이 1,200만 명의 인도인과 중국인을 유럽제국의 노예적 노동을 위해 급파한 일이나, 현재 국제결혼과 성적 착취를 위해 여성과 아동을 대량 인신매매하는 일과 함께 다루어야 한다. 비 백인 인구의 대륙 너머로의 이송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좀더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토비아스 휘비네트, 「고아 열차에서 아동 공수까지」, 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269-271면.

해야 한다. 입양 전부터 입양을 선택한 이들은 자신을 빈곤국가의 부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출생 국가나 인종, 성별을 선택하여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듯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고 여긴다. 자신들이 부모로서 더 적합하다는 인식은 입양 가정 내 인종적 위계구조를 지워버릴 뿐 아니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로 구현되는 백인의 특권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44]

결과적으로 해외입양인의 몸과 정신을 분열시키는 근본 원인에 인종주의가 놓여 있음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케이티 로빈슨이나 제인 정 트렌카와 같이 백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입양된 이들은 백인의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는 동시에 그 자신이 비(非)백인임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월감과 혐오감을 동시에 내장하게 되는 그 정신과 몸은 한국으로 귀환한 후에 중첩적으로 가중된 모순에 노출된다. 양국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속할 수 없음을 절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와 권력관계가 복합적으로 가로지르는 몸과 정신이라는 점에서, 입양인의 귀환은, 구조적 배제의 일부를 자신에게 새겨 넣는 방식이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봉인된 문제를 찢어 정면으로 응시하는 일이자 비장소에 놓여 있는 내부적 외부자로서의 자신을 가시화하는 일이다.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인종주의와 구조적 배제를 그 몸과 정신에 다시 새겨 넣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몸은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그 몸이 비장소를 배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이다.

5. 대표성에서 관계성으로

제인 정 트렌카의 자전적 에세이의 빛나는 대목은, 입양 문제가 결국 입양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 지점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추도식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입양 부모에게 참석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한다. 그들의 거절이 양부모 특히 어머니가

44) 김 박 넬슨, 「국제시장에서의 아동 쇼핑」, 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196-201면.

단지 루터교에 충실한, 엄격한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이라서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입양을 백인 가정에의 동화로 여기는 인식이 내장되어 있으며, 그런 인식이 제인의 출생을 둘러싼 타자적 요소들, 국가와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지워버리고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제인은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 아론이 가족에게 부정당하는 상황, 즉 신체적 외양에서 완벽한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론이 게이로서의 자신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입양인과 다르지 않은 존재로 배척되는 상황을 통해, 중첩된 맥락 속에서 입양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살피게 된다.[45] 국가도 부모도 선택할 수 없었던 입양인인 자신과 게이인 아론에게 요구되는 동화의 압력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인식적 확장은 비장소에 대한 이해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겠다.[46]

물론 이러한 확장적 인식에도 추가적 인식은 부가되어야 한다. 케이티 로빈슨과 제인 정 트렌카의 작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입양인의 귀환 서사가 귀환 서사를 대표하지는 않으며 입양 서사를 대표하는 것도, 입양 문제의 일면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인종 간 입양 연구자들이 힘주어 강조하듯, 인종 간 입양인의 이야기들 가운데 같은 이야기는 거의 없으며, 정치적 입장도 각기 다르다. 가령, 한국계 입양인으로 2002년 노르웨이 최고 권위의 브라게 문학상(청소년도서 부문)을 수상한 쉰네 순 뢰에스(한국이름 지선)는 문학동네에서 번역 출간된 자신의 소설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2006, 원제는 A spise blomster til frokost)를 기념하는 인터뷰에서 생후 7개월 만에

45) 가족에게 아론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일부러 게이가 되었겠는가. "이 집안에서 게이가 되는 게, 빌어먹을,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하세요? 내가 원해서 이런 줄 아세요?"(제인 정 트렌카, 『피의 언어』, 316면) 반문한 바 있다.

46) 물론 이 문제 역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손쉬운 연대를 상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일 수 있다. '인종적 우울racial melancholia'를 다루는 데이비드 응이 『친밀감*the feeling of kinship*』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해외 입양은 자녀 양육이 이른바 '정상가족' 실현과 완전한 시민권을 방증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동성 부부들을 포함한 불임부부의 입양 열기로 확산된 측면이 있다. 가족과 집, 시민권, 국민국가가 상호 연관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외국 출신) 입양아를 두었다는 것은 일종의 거창한 전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 오월의봄, 2019, 75면.

쌍둥이 오빠와 함께 입양되었고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외모 때문에 한국 태생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특별히 그 때문에 사춘기가 더 힘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만난 친생부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울자 "당황했다"고, 이어 "부모님의 죄의식을 감싸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면서 "지금은 친부모를 존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47] 양부모의 관점에서 해외입양을 옹호하며 자신들이 스웨덴인임을 분명히 한 소설가 트롯찌나 언론인 리프벤달, 순드스트룀과 같은 입양인을 거론해볼 수도 있겠다.[48] 앞서 언어 소통과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굴절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해 환기한 바 있지만, 그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해외입양인 서사에서의 바로 이 대표성 없음의 면모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외입양인 서사에 대한 메타적 검토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오해된 단어를 번역한, 왜곡된 삶을 재창조한, 말하지 않은 사람을 들으려는 불가능한 시도가 되어야 하고, 수많은 각기 다른 해외입양인의 귀환 경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기록될 수 없는 존재들의 전기에 다가가고자 하는 불가능한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49]

요컨대, 『아이들 파는 나라』의 프롤로그에 소개된 아담 크랩서 씨와 경우를 포함한[50] 비장소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가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 장소(국가, 지역, 사회, 문화, 언어, 식습관 등)에서 태어나서 다른 장소(국가, 지역, 사회, 문화, 언어 식습관 등)에서 자라고 양육되어도 바뀌지 않는 입양인의 육체는 인종과 국적을 둘러싼 이념들의 폭력적 충돌의 (비)장소임을

47) 「노르웨이 최고문학상 수상한 동포 쉰네 순 뢰에스」, 『재외동포신문』 2006.12.30. http://www.dongponews.net.

48) 박정준, 「북유럽 입양인 문학에 나타난 국외입양 비판론 연구: 마야 리 랑배드의 작품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13(1),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20, 106면.

49) Saidiya Hartman, "Venus in Two Acts", *Small Axe*, Vol.12, No. 2, 2008, pp. 1-14

50) 아담 크랩서 씨는 만 2세인 1979년, 누나와 함께 미국에 입양되었으나 41세인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양부모의 불찰로 시민권 취득 신청과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뒤늦게 알고 영주권을 받으려다 과거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면서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 미국 국제입양인 중 3만 5천여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이들 중 1만 9천여 명이 한국 출신 입양인이다.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 오월의봄, 2019, 16면.

인정한 채로, 그럼에도 그 몸들을 인종차별과 고립과 학대로 인한 소외와 중독이라는 희생자의 (비)장소에 가두지 않고, 당사자의 목소리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누군가('나')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은 채로, 비장소의 쓰기-기록은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타자를 현재 시제"로 다루고자 하는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의 논의를 빌려 보자면,[51] 타자란 연구자에 의해 대상화되는 연구대상자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는 문화기술지와 관련하여 "내밀한 타자(성)"[52]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 "민족학이 연구하는 체계들 속에서 사적인 타자성을 재현할 필요는 개인성의 중심부에 놓여 있고, 이 때문에 집단적 정체성의 문제와 개인적 정체성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다"(30)라는 식으로 기술한다. 인류학자가 개인의 재현에 관심을 가질 때, 개인의 재현이 사회적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며, 이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개인의 재현이 "개인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의 재현"(30)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어서 강조한다. 여기서 개인이란 사회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따라서 개인은 대표성이 아니라 관계성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대상이며, 그 관계성을 지칭하는 바가 바로, 마르크 오제에 따르면, "내밀한 타자성"인 것이다. 이 글이 가리키고자 하는 비장소가 바로 이 "내밀한 타자성"의 장소라고 말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대표성에서 관계성으로의 이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타자 내의 차이에 대한

51) 가까운 곳의 인류학을 논의하면서, 『비장소』의 저자 마르크 오제는 타자의 문제가 인류학이 우연히 마주치는 테마가 아니라, 유일한 지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타자에서 출발해서 인류학의 다양한 연구영역이 규정된다고 여긴다. "인류학은 타자를 현재 시제로 다루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와 구별된다. 그리고 인류학은 타자를 동시에, 복수의 의미로 다루는데, 이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과 구별된다"(Marc Augé 저, 이상길・이윤영 역, 『비장소—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 2017, 28-29면.)고 규정했다. 멀리 있는 현장의 연구로부터 가까운 곳으로의 연구라는 이동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섬세한 논거를 따라가 보는 일도 흥미롭겠으나, 그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인류학의 규정 자체이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 "타자를 현재 시제"로 다룬다는 규정만큼 문학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2) 그는 타자를 좀더 세분하여 '우리'와의 관계에 놓인 타자, 동일하다고 가정된 타자들 전체인 '그들'과의 관련 속에서 규정되는 타자들의 타자 즉 종족적-문화적 타자, 차이들의 체계에 참조점으로 사용되는 내부의 타자인 사회적 타자, 그리고 온갖 사유체계의 중심부에 현존하는 것으로서의 "내밀한 타자"를 말한다. Marc Augé 저, 이상길・이윤영 역, 『비장소—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 2017, 30쪽.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소수자의 고통 가운데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것은, 소수자가 개별자로 인식되지 않고 덩어리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소수자의 표식이, 그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덧붙어 버려서, 소수자 개인의 가치가 대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수자의 얼굴은 덩어리로서의 표식을 드러내는 존재인 한에서라고도 할 수 있다.[53] 여전히 지속되는 이런 문제들에 비추어 말해보자면, 비장소에 주목하여 옆에서 듣고 읽는 작업은 타자를 현재 시제로 다룬다는 것의 의미에 값하는 수행적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3) 인종적 체험의 앙금이 쌓이고 자신이 인식하는 현실이 끊임없이 의심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자극받아 생긴 부정적이고 불쾌하며 보기에도 안 좋은 일련의 인종화된 감정을 소수적 감정minor feelings으로 규정하고, 그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본 자전적 에세이인 『마이너 필링스』의 저자가 지적한 바 있듯, 소수적 감정을 다루는 작업은 인종 트라우마가 개인에게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며 개인을 언제나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것임을 탐색하는 과정이다.(Cathy Park Hong 저,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마티, 2021, 84면.) 반대로 이 소수적 감정이 비-소수자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포착되지도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다. 가령,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자전적 에세이(논픽션)인 『거기 눈을 심어라』의 저자가 언급하고 있듯, 헬렌 켈러의 삶이 92세까지 이어졌으며 수많은 책을 출간했음에도 비-장애인들의 관심은 켈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 『헬렌 켈러 자서전』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의 범주를 넘어선 기록들에 대한 비-소수자들의 무관심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M. M. Leona Godin 저, 오숙은 역, 『거기 눈을 심어라』, 반비, 2002, 16면)

▮ 참고문헌

리사 울림 셰블룸 저, 이유진 역, 『나는 누구입니까』, 산하, 2018.
제인 정 트렌카, 송재평 옮김, 『피의 언어』, 와이겔리, 2005.
_____, 이일수 옮김, 『덧없는 환영들』, 창비, 2013.
케이티 로빈슨 저, 최세희 역, 『커밍 홈』, 중심, 2002.

논 문

구은숙, 「한국 입양서사에 나타난 귀향과 기원 신화에 대한 재정의: 제인 정 트렌카의 『덧없는 환영』」,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 18(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김영미, 「초국가적 입양소설에 나타난 동화와 민족 정체성 문제: 마리 명옥 리의 『누군가의 딸』과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를 중심으로」, 『미국소설』 15(2), 미국소설학회, 2008.
_____, 「동향: 입양과 입양문학 연구의 몇가지 경향」, 『안과밖』 26, 영미문학연구회, 2009.
_____, 「한국계 입양문학에 나타난 뿌리와 기원의 탐색 연구: 케이티 로빈슨의 『사진 한 장: 한국 입양아의 뿌리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7,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9.
김현숙, 「초국가적 입양과 탈경계적 정체성—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 『영어영문학』 57(1), 한국영어영문학회, 2011.
박순호,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6),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위여경, 「해외입양인의 귀향과 친부모 만남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2.
유진월, 「이산의 체험과 디아스포라의 언어」, 『한국학』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유진월・이화영, 「침묵하는 타자에서 저항하는 주체로의 귀환: 해외 여성 입양인 문학의 한 지평」, 『우리문학연구』 29, 우리문학회, 2010.
이일수, 「입양 체험기 『덧없는 환영들』에서 읽는 "고유한 장소"」, 『현대영미소설』 26(3),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9.
임진희, 「제인 정 트렌카의 입양의 몸: 언어, 피의 소리, 그리고 음악」, 『현대영미소설』 20(2),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3.
장미영, 「다문화 공간과 타자성 사유 방식—한국계 해외입양인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0(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정소라, 「'가부장' 없는 가부장제: 한국 미혼모의 입양과 양육 실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6.
차민영,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 초국가 입양인의 의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색」,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8(4), 순천향대 인문학연구소, 2019.
_____,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에 나타난 초국가 입양 디아스포라」, 『현대영어영문학』 63(4),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19.
허혜정, 「『커밍 홈』과 『피의 언어』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23.
황은덕, 「입양인 디아스포라와 친생모의 서사: 『누군가의 딸』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54(3), 새한영어영문학회, 2012.
_____, 「귀환 입양인 디아스포라 서사의 변화: 『누군가의 딸』과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비교」, 『새한영어영문학』 65(1), 새한영어영문학회, 2023.

Jane Jeong Trenka, 「백만 명의 살아 있는 유령들」, 『여이연』 22, 도서출판여이연, 2010.
_____, 「Internationally Adopted Koreans and the Movement to Revise the Korean Adoption Law」, 『이화젠더법학』 2(2),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011.

단행본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2017(개정증보판: 2022).
전홍기혜 외, 『아이들을 파는 나라: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봄, 2019.
Arissa H. Oh 저,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Cathy Park Hong 저,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마티, 2021.
Katherine Kim 외 저, 강미경 역, 『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 뿌리의집, 2020.
Kathleen Ja Sook Bergquist, 『한국 해외 입양: 초국가적 아동 양육 실험과 분투하는 입양 서사 50년』, 뿌리의집, 2015.
Maja Lee Langvad 저, 손화수 역, 『그 여자는 화가 난다』, 난다, 2022.
Marc Augé 저, 이상길·이윤영 역, 『비장소—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 2017.
Nancy Newton Verrier 저, 뿌리의집 역, 『원초적 상처: 입양가족의 성장을 위한 카운슬링』, 뿌리의집, 2013.
Saidiya Hartman, "Venus in Two Acts", *Small Axe*, Vol.12, NO.2, 2008, pp. 1-14.
Tobias Hübinette 외 저,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집, 2012.
Tobias Hübinette 저, 뿌리의집 역,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 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소나무, 2008.

【Abstract】

Writing-document of Non-Places
: Focusing on the autobiographical essay of an overseas adoptee

So, Young-Hyun*

Through Katy Robinson's *A Single Square Picture: A Korean Adoptee's Search for Her Roots*, Jane Jung Trenka's *The language of Blood: A Memoir*, *Fugitive Vision: An Adoptee's Return to Korea*, this article reviewed writings that contain the experiences of an adult overseas adoptee returning to Korea to find his biological parents and the origin of his existence. These articles, which recorded the adoption experience and return journey of overseas adopters, we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writing-document of non-place. Understanding the document of An Adoptee's Return to Korea as a writing-document of non-place recognizes that the document of An Adoptee's Return to Korea is a transformed document, which should be called cultural refraction, and asks whether violence, deleted emotions, or voices swallowed by silence can be restored. What is important at this time is to acknowledge that overlapping refractions cannot be restored in the end, breaking away from the logic of dichotomous restoration of the pure-pollution method, and if it can be restored accordingly, it will be admitted that it is through repetitive work of dismantling and rebuilding writing-documents of non-place. If the adoptee's adoption and return experience is a writing-documents of non-place, this article itself can be called a writing-documents of non-place in that the meta-work on it is also a writing-documents of non-place. In short, we tried to gauge whether it was possible to make room for the living or imagine an alternative future through writing-document to approach this non-place, an asymptotic translation work that was not finished and repeated.

Keywords: adoption abroad, return to Korea, autobiographical essay, non-places, Katy Robinson, *A Single Square Picture :A Korean Adoptee's Search for Her Roots*, Jane Jung Trenka, *The language of Blood: A Memoir*, *Fugitive Vision: An Adoptee's Return to Korea.*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0.

* Professor, Literature Translation Inst. of Korea.